

80대 할머니의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4년째 자체 온라인 방송 전지, 좋은 이야기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 집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원고를 녹음하고 있는 김선녀할머니. “늘그막 온라인 방송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친구 방송’ 시간입니다...”

목소리만 듣고서는 방송인이 올해 80대 고령 로인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 않는다. 목소리의 발음, 감정이며 정서까지... 아무리 귀를 도사리고 들어봐도 힘과 용기를 주는 카랑카랑한 젊은 목소리요, 긍정적인 내용들이 다.

3월 27일, 기자가 연길시 현대국제아파트단지에서 살고 계시는 화제의 주인공 김선녀(84세) 할머니의 집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이번 주 방송할 녹음 준비로 바빠 돌아치고 있었다. “이번 주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제로 ‘공자의 이야기’를 준비했지요.” 연변도서관에서 추천해줬다는 신간도서 《공자 이야기》 책을 할머니는 펼쳐보았다. 서투름이 없이 조용히 책상에 마주앉더니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익숙한 솜씨로 원고지를 푼박푼박 읽어내려갔다...

알고보니 김선녀할머니가 온라인 방송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6일의 일이었다. 할머니는 당시 81세를 의미하는 ‘8학년 1반 친구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처음 방송을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년째 김선녀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자신이 직접 녹음한 음성파일을 유헤에 올려 세상과 대면시키고 있었다. 자신이 한주 동안 동봉 서주하면서 열심히 고른 좋은 글들을 알뜰히 편집, 녹음하여 음성파일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김할머니의 방송을 즐겨 듣는다. 김선녀할머니의 로인장을 과시하는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이 많은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려주기 때문이다.

현재 김선녀할머니가 만드는 ‘좋은 친구 방송’은 연변사랑송협회 송미자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로 연변 사랑송협회 공식계정과 연변도서관 공식계정의 ‘듣는 도서관 방송’을 통해 널리 방송되고 있었다.

알고 보면 김선녀할머니는 일찍 20대 초반이었던 1960년대 초 화룡현 방송국의 방송원으로 몇년간 사업했던 경력도 있었다. 그 후 여러가지 원인으로 그토록 사랑하던 방송원 일을 하지 못했으나 다년간 연변인민방송국과 연변텔레비전방송국에서 사업하면서 연변의 첫 여성 TV 기자, 프로듀서로 되었으며 연변 TV 방송국 ‘꽃봉오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꽃봉오리예술탈’을 창단하여 조선족 어린이들의 프로그램 중앙 TV에까지 방송되고 조선족 어린이들의 높은 예술기교를 세상에 널리 알리었다. 김선녀할머니가 기획하고 제작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국가급 상을 받아안았으며 김선녀할머니 역시 사업 성과가 돌출하여 ‘주 3.8 붉은기수’, ‘성우수보도사업자’, ‘중앙라디오 TV 방송계통 선진

사업자’ 등 많은 빛나는 영예를 안아 오기도 했다. 김선녀할머니가 젊은 시절 간직했던 방송원의 꿈은 퇴색하지 않았다. 김선녀할머니는 우리말 방송을 하는 것이 맘속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었고 비록 몸은 늙었지만 좋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방송을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신화서점에 가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 책을 사다 보면서 방송하였다. 아무런 보수도, 대가도 없는 온라인 방송을 하려고 많은 돈을 팔면서 책을 구입해들었다는 것도 하루이틀 일이지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할머니의 지극정성이 주위를 감동시켜 지금은 적지 않은 지인들이 책이며 좋은 글들을 보내주며 연변도서관에서도 할머니에게 도서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할머니는 매일 5권의 책을 연변도서관에서 빌려와 좋은 내용을 선정해서 편집 방송하고 있었다.

스마트기계에 서막한 로인세대로서 핸드폰을 리용한 녹음작업을 무난하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간 마찬가지다. 방송시설이 없는 서재를 녹음실 삼아 쓰면서 편집기도 없이 한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녹음하고, 그렇게 중복해서 녹음하다 보니 때로는 30분 분량의 방송 내용을 온종일 녹음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짜증 내거나 실망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성공과 행복을 느껴보는데 이 일도 어언 4년째 견지해오고 있는 것이었다.

지난해 국경절에 놀러 왔던 북경의 큰딸과 사위가 안스럽게 생각해 편집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어머니에게 사줘서 녹음이 이전처럼 너무 어렵지는 않다고 했다. 김선녀할머니는 전에는 원고들을 한글자 한글자 베껴서

작성했지만 지금은 프린터를 사서 인쇄해서 원고를 작성하니 품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기뻐했다. 할머니가 현재 방송하는 ‘좋은 친구 방송’에서 우리 민족의 전기, 영웅인물, 우수한 중단편소설과 수필, 수기 등 긍정적인 내용의 글들을 많이 선전 공유하고 있었다.



1994년 연변 TV 방송국 ‘꽃봉오리예술탈’ 어린이들 속에 있는 김선녀

“나이가 많아도 할 일이 있으면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진다.”고 할머니는 임버릇처럼 말한다. 방송을 하기 전에 할머니는 팔다공증과 척추손상 등으로 허리에 보조대를 끼지 않으면 번번히 서있기조차 힘들었고 또 심장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 때문에 약도 한줌씩 먹어야 했다.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도 모두 잃어버렸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인지 하루하루가 유쾌하고 아픈 줄을 모르겠다고 할머니는 말한다.

“솔직히 나는 지금 누구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매일매일 바쁜 감각 속에서 마음의 부자로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선녀할머니는 자신의 목소리가 국내는 물론 한국,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방송을 위하여 더 많은 책을 꾸준히 열독하면서 견식을 넓힐 수 있어 좋고 방송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어 정말 ‘일거양득’, ‘일거다득’이라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전국애심녀성포럼에서 조직한 ‘애심녀성경’ 제9회 전국조선족녀성 생활수기 공모에서 김선녀할머니 자신의 온라인 방송 생활을 소재로 쓴 수기 《8학년 3반입니다》가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정을 받으면서 은상의 영예를 받아안았다. 당시 김선녀할머니는 은상 상금 3,000 원 전액을 전국애심녀성포럼의 민족공익사업에 기부하여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았다.

전국애심녀성포럼의 명예회장인 리란은 “김선녀할머니가 83세 고령에도 조선족 청중들을 위해 온라인 조선말 방송을 견지하는 것도 대단하고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글까지 쓰셔서 수상한 것도 대단한데 품위 있게 단정하시고 현장에 오셔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힘이 넘치는 수상소감을 발표하시는 장면이 전국 각지에서 온 애심녀성 리더들이 무척 감동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8학년 친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듣노라면 그 방송원이 팔손을 낚긴 할머니라고 전혀 믿겨지지 않아요. 할머니가 방송하지 주덕해 초대주장, 조남기 사장 등 우리 민족의 우수한 지도자들과 정률성, 리홍광, 김산 등 길이 빛날 우리 민족 영웅들의 사적들에 서 큰 감동과 교훈을 받았고 잘 몰랐던 조선족의 역사와 혁명투쟁사를 새롭게 알게 되어 너무 유익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의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의 감동적이고 격정에 넘치는 댓글들이 매일매일 줄을 잇는다. 북경에 심녀성협회의 한 지인은 “선생님의 그 도전정신과 열정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선생님은 영원한 스승이고 언니이며 로인들의 롤모델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애정 넘치는 찬사와 격려의 댓글을 보내왔다.

“비록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은 지상과 방송의 정규적인 아나운서들보다는 수준이 낮고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가끔 눈물에 젖어 떨리고 마음속에 솟구치는 격정과 환희가 그대로 진솔한 말이 되고 힘이 되어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 용기와 힐링을 주고 있다고 저는 늘 자부합니다.” 김선녀할머니의 자랑스런 고백이다.

김선녀할머니의 큰딸 김영씨는 어머니가 건강도 좋지 않음에 온라인 방송에 너무 열심히 것 같아 여러번 만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방송에 인생을 바치신 어머니의 우리 민족과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자식들도 막을 수 없으면서 지금은 다만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방송하시고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방송을 애청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늘그막 온라인 방송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도 더 좋은 자료를 찾아 청취자들에게 선물하려고 집문을 나서시는 84세 김선녀할머니의 인생은 불타오르는 저녁노을처럼 아름답다.

/안상근기자



삼월삼진날의 유래와 풍속

- 신기덕 -

삼월삼진날을 상사일(上巳日), 답청절(踏靑節), 전춘일(錢春日)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절은 한(漢)나라 이전에 삼월 상순의 사일(巳日)로 정해졌다가 하력(夏曆) 삼월 초삼일에 고정되었다. 상사절은 고대 ‘제수욕(袪除畔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사람들은 함께 물가에 가서 목욕하는 것을 ‘제수욕’이라고 불렀고 그 후 제사와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등의 봄나들이 내용이 추가되었다.

상고시대에는 ‘간지(干支)’로 날짜를 기록했는데 3월 초순의 첫 번째 사일을 ‘상사’라고 하였다. ‘상사’라는 말은 한나라초의 문헌에 처음 수록되어있는데 《주례(周禮)》에서는 “세시를 제거했더니 지금 3월의 상사는 물 위에 띄워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즐겁게 노는 날이다. 삼진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한량들이 모여 편을 짜서 활쏘기 대회도 하고 이때를 전후하여 각 마을에서는 경회회를 베풀어 로인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이날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을 하여 찹쌀떡을 발라가면서 둥글게 지져먹으니 이를 ‘화전’이라 하였고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혀서 가늘게 썰어 오미자 물에 넣고 또 꿀을 타고 찹쌀 넣어 먹으니 이를 ‘화면’이라 하였으며 삼진날에 썩음을 따서 찹쌀가루를 섞어 찜찜 떡을 만드는데 이것을 썩떡이라 하였다. 삼진날에는 ‘삼진날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고 약물을 마시면 한해 무병하다.’는 속담이 있다.



4월 13일, 연길에서 록화제작된 절강위성 TV 예능프로인 《행운여행가》가 정식으로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절강위성 TV, 집인매체(聚仁传媒)가 연합으로 출판한 것으로서 스타, 문화, 관광, 사교탐색을 일체화한 신형의 문화관광류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번 령정에서 소견신, 마백건, 송일, 하조련, 당우철, 비계명 등 연예인들이 연길시 코스모민속산장에서 출발하여 차례로 서시장 등 연길의 특색 출철지로 가서 재미있는 탐색을 진행한다. 《행운여행가》 총프로듀서인 왕신은 지난 겨울철 기간 동북 관광이 아주 뜨거웠기에 제작진은 이 프로의 록화를 연길에 배치하여 관중들이 아름답고 독특한 연길의 도시 매력을 알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길에서 일부 민속공연과 무형문화유산을 음미했다면서 이는 제작진의 행운이며 더욱 행운스러운 것은 전국관중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길에 이렇게 많은 맛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연길에 와서 구경하고 맛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4월 13일 22시 절강위성 TV에서 방송되며 22시 30분에 Z시계(Z视介), 텐센트영상, 아이치이(爱奇艺), 유쿠 클라이언트에 서도 만나볼 수 있다. /연길뉴스넷

▲ 1961년 화룡현방송국에서 방송원으로 있던 20대 시절의 김선녀 (오른쪽)